

# “경기침체 고통...진도의 눈물 닦아 주오”

## 박대통령 팽목항 방문...진도 군민들 반응

### 어민 피해·관광객 급감...지역경제 회복 기미 없어

### ‘반쪽짜리’ 배·보상도 불만...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격적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 선체 인양을 약속하며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 ‘적극적인 검토’ 수준의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보다 진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기대했던 것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참

사로 경제적 직격탄을 맞은 진도 지역민들에 대한 언급 등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박 대통령이 이날 진도 팽목항을 찾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유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랐다.

다만,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오랜 기간을 거쳐 이뤄진 데 따른 아쉬움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데 따른 실망 섞인 반응도 많았다. 희생자 유가족은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듣고 싶었는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며 아쉬워했다.

진도지역민들의 아쉬움도 컸다. 진도 지역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막대한 손실로 지역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방문에 기대를 거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준 진도 지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 정공진(56) 회장은 “정부의 배·보상 절차엔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진도 상인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진도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도 푸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신모(여·51)씨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대해보상에 대한 말도 꺼내기 힘들었다”면서 “어업인에 한정된 피해보상 등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진도=박기용기자 pboxer@

## 오재일 전 이사장, 5·18재단 직원 등 10명 고소

### 시민단체 포함 명예훼손 혐의

5·18 기념재단 오재일 전 이사장이 최근 재단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6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 전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 기념재단지회 소속 노조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부경찰에 이첩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노조원과 시민단체 등이) 성명서 등을 통해 재단 직원 2명을 해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라며 “(나는) 해고한 적이 없다. 잘못된 부분

에 대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가) 재단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갑질하는 이사장’, ‘직원과의 불화설’ 등을 운운하면서 비난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 기념재단지회는 지난 1월 직원 2명을 해고된 데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5·18 기념재단을 형사고발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노란 풍선 날리며 추모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후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노란 풍선을 날리고 있다. /진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팽목항 뒤덮은 노란 추모 물결

### 전국 곳곳에서 발길 줄이어

### 국악고생 공연중 울음 ‘속연’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추모객들의 노란 리본으로 팽목항이 뒤덮였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진도 팽목항에는 희생자를 잊지 않고 닦을 기리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부의 안일한 후속 대책에 대한 반발로 팽목

항 분향소가 폐쇄됐지만 노란 리본과 국화꽃을 든 수천명의 추모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진도국악고 학생 20명은 이날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제 중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보시보림’ 공연을 하다가 울음을 터트리 주위를 숙연하게 하였다. 추모의 글을 적은 노란 리본을, 오래전에 걸려 빛이 바랜 현 리본이 걸린 틈에 다시 내걸거나 1년 전 추모 메시지에 새 추모의

글을 덧붙이며 숨죽여 오열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강혜민(17)양 등 진도고 학생 100명은 수학여행 길에서 참사를 당한 단원과 친구 등 희생자에게 “세월호를 잊지 않고 실종자 모두 수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편지를 써 유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정의평화사제단 성공회 50명은 ‘밀양 송전탑’을 놓고 정부와 갈등해 온 밀양시

평발마을 할머니 3명의 위로 편지를 들고 팽목항까지 320km를 도보 순례했다.

새벽 4시에 경남 김해시에서 출발, 팽목항에 도착한 최은호(41), 황태경(여·43)씨 부부는 딸 서연(11), 서정(7)양에게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기억의 벽(195m)’에 붙은 도자기 판을 일일이 읽어줬다.

이날 오후에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소속 신도들이 각 성당별로 버스를 타고 팽목항에 도착, 추모 미사를 치렀고 진도불교사암연합회는 추모법회를 열어 희생자의 영혼을 달랬다.

진도=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비자금 조성 의혹’ 중흥건설 대표 소환 조사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이사가 1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흥건설 자금담당 간부 구속이 이어 대표 소환까지 이뤄지면서 남독할만한 수준의 비리혐의를 찾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중흥건설 대표이사 정원주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 대표 소환과 관련, 자금 담당 경리부장 A(57)씨에 대한 구속 이후 정 대표 혐의 입증에 위한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데 따른 수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100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 및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흥건설 본사, 대표와 회계 관계자 등 자택 3곳,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 본사 경리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정 대표 소환에 나서면서 경제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 마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정 대표를 오전에 소환해 조사한 뒤 추후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를 및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흥건설 본사, 대표와 회계 관계자 등 자택 3곳,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 본사 경리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정 대표 소환에 나서면서 경제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조사만으로 마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정 대표를 오전에 소환해 조사한 뒤 추후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광주지검, 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실 현판식...본격 활동

광주지검은 16일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담 지원실 현판식을 갖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실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범죄 피해자 관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데

따라 광주지검 2층에 마련됐다.

전담 수사관이 지원실에서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힘을 기울인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주택가 철재 대문 몰래 뜯어 고물상에 판 40대 철창행

○주택가에서 철재 대문을 몰래 뜯어낸 뒤 이를 고물상에 되판 40대 남성이 철창행.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황모(48)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45분께 광주시 북구 이모(31)씨의 집 대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대문을 훔쳐가는 등 최근

까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남의 집 대문 8개를 몰래 뜯어간 혐의.

○황씨는 CCTV 화면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철재 대문을 팔면 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신축 원룸 매매

**관심**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울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우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62) 527-7600  
 010-7384-78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올수리**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월수익 900만  
 ..  
 주인 직접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완지구 모아텔7방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전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수완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5만

010-6670-9800  
 010-7384-7800

###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학원, 사무실, 본사 적합)

※ 은행 중심가도 뒷 이면코너에 위치

- ① 평수 90평
- ② 층수 5층
- ③ 시설 리모델링, 학원 시설완비

주차장 무료 4대  
 주변 300대 확보

광주에서 가장 저렴한 (즉시 입주가능)

보증금 3천  
 월 150만

010-7384-7800  
 010-6832-9700

###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5백
- ②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평가 6억6천, 최자가 3억6천
- ③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90㎡) 감평가 9억4천, 최자가 2억1천5백
- ④ 남구 노대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2천
- ⑤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① 광신구 소촌동(2층근린상가) (토 121㎡, 건물 89㎡)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3억8천
- ② 광신구 소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자가 3억7천
- ③ 서구 쌍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자가 3억7천
- ④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자가 2억 1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2억9천
- ⑥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자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① 북구 일곡동 (1층 패자점)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자가 28억
- ② 북구 매곡동 (1층 조립식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자가 11억
- ③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5억9천, 최자가 3억9천
- ④ 동구 계림동 (3층) (토 59㎡, 건물 140㎡) 감평가 4억9천, 최자가 3억
- ⑤ 담양군 금성동 (3층편선건물) (토 3030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자가 9억9천
- ⑥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역사점)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자가 88억
- ⑦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8천, 최자가 1억3천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지원구함 (남, 여)  
 ★ 경매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①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②VIP실전반(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① 오전반 10시 ~ 11시 30분  
 ② 오후반 7시 ~ 8시 30분  
 ③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실~토록~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 경매 물건 추천

- 1 서구 쌍촌동 (상무4지구) 근린주택 4층 감평가 4억7천 → 최자가 3억7천
- 2 담양군 금성동 (펜션) 토지 9000평 감평가 27억 → 최자가 9억9천
- 3 광산구 수완동 4층(원룸) 감평가 6억5천 → 최자가 4억5천

062-527-7600  
 010-7384-7800